

室町・戰國時代「記錄」과  
『大乘院寺社雜事記』

朴秀哲

머리말

I. 『雜事記』의 成立

II. 『雜事記』의 內容

1. 「下剋上」과 「貴種」觀念

2. 「神罰·神國」論

맺음말

# 室町・戰國時代 「記錄」과 『大乘院寺社雜事記』

朴秀哲\*

## 머리말

史書編纂이란 관점에서 볼 때 室町時代는 독특한 시기이다. 『吾妻鏡』(東鑑)을 편찬한 鎌倉幕府와 『御實紀』(德川實紀)를 편찬한 江戸幕府와 달리, 室町막부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독자적인 사서를 편찬하지 않았다. 후대왕조가 자신의 역사적 전통성을 대내 외에 과시하기 위해 전대왕조의 역사를 편찬했던 중국과 달리, 일본은 당대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그러나 室町幕府는 전대의 역사는 물론 자신의 역사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15대 240년에 이르는 실정막부의 사적을 기록한 史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花營三代記』와 『後鑑』이 있다. 그러나 武家日記·室町記·室町三代記라고도 하는 화영삼대기는 足利義滿·義持·義量의 三代에 한정되며,<sup>1)</sup> 실정막부의 정사임을 표방하는 후감은 江戸幕府에 의해 개항직전의 幕末期에 편찬된 데 불과하다.<sup>2)</sup> 「중세를 검창·남북조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양분하

---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

1) 『群書類從』 26(雜部)

2) 『後鑑』(增訂增補國史大系本). 분량은 347권, 부록20권이며, 江戸막부의 奥儒者(將軍의 侍講을 맡은 儒者) 成島良讓이 막부명령에 의해 天保8년(1837)부터 嘉永6년(1853)에 걸쳐 편찬하였다.(羽下徳彦, 『後鑑』, 『國史大系書目解題』上, 吉川弘文館, 1971)

는 경우, 양 시기의 차이점의 하나로 역사서술의 유무를 거론할 수 있지 않는가,<sup>3)</sup>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사서편찬의 빈곤이라는 室町·戰國시대의 독특한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史學史上 실정·전국시대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 자연 연구자들의 관심도 옅은 편인데,<sup>5)</sup> 달리 말하면 바로 이 점이 이 시기 사학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막부가 공식으로 편찬한 사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실정·전국시대를 「無史書」나 「기록부재」의 시기로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비록 사료적 가치와 뛰어난 역사적 관점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정·전국시대에는 武家の 흥망성쇠를 다룬 방대한 軍記記錄物이 존재한다. 史書を 「역사를 서술한 서책, 역사서, 서적」<sup>6)</sup>이란 정의에 근거하면, 넓은 의미로 볼 때 군기기록물 역시 사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도 『群書類從』·『續群書類從』·『改定史籍集覽』 등에 실려 전해지는 이러한 기록들은 그 대부분이 무수한 전란의 과정에서 산일되어 그 중 극히 일부분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 할 때, 본래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 시기의 軍記는 문학적 면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료적인 면에서도 일급사료라고는 할 수 없는 軍談類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軍記기록물과 달리 사료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른바 「日記」로 대표되는 古記錄이다. 고기록은 문헌사료중 하나로, 日本史學에서는 문헌사료를 古記錄·古文書·古典籍으로 三分類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sup> 이 三者는 기술자가 의도하는

- 3) 高木豊, 「中世の思想文化」, 『岩波講座日本歴史』 26·別卷3, (岩波書店, 1977), p.124.
- 4) 伊豆公夫도 室町·戰國時代를 역사학 빈곤의 시기이며 괄목한 史論이 보이지 않는 「실천의 世紀」라 평가하고 있다.(同, 『新編日本史學史』, 校倉書房, 1972, p.164)
- 5) 三浦周行은 六國史이후의 사학사를 實錄(文德實錄·三代實錄)에서 2종류로 분파된 것이라 보아, 그것을 ①官府일기와 ②私撰의 역사로 대별하였다. 그외 별도로 ③ 史論體의 역사서로 愚管抄와 神皇正統記를 언급한 후, 실정·전국시대 사서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근세초두로 넘어가고 있다.(同, 「日本史學史概說」, 『日本史の研究』第二輯, 岩波書店, 1930). 三浦의 이런 인식은 통설화되어, 이후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坂本太郎, 『日本の修史と史學』, 至文堂, 1958)
- 6)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1974.
- 7) 杉浦明平, 『戰國亂世の文學』, (岩波書店, 1965), p3.
- 8) 기록·문서·전적이란 용어는 물론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明治初 黑板勝美에 의해 비로소 문헌사료전반을 분류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土田直鎮, 「古代史料論」(記錄), 『岩波講座日本歴史』 25 別卷2, 1976, p.72)

바의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문서란 자기의 의지를 특정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書狀(편지)처럼 발송인과 수취인이 존재한다. 전적(編著라고도 함)은 자기의 사상과 지식을 불특정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은 기술자가 자기 비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日記로 대표된다. 반드시 室町時代に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古文書와 더불어 그 당시의 기록물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 일기(고기록)이다.<sup>9)</sup> 일기는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사료로도 중요하며 당대인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기는 단순히 개인비망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일기자체가 거의 예외 없이 子孫이나 他人의 열람을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기는 일종의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興福寺 大乘院 門跡 尋尊의 일기인 『大乘院寺社雜事記』(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잡사기로 약칭함)를 분석하고자 한다. 織田信長에 의한 叡山燃燒로 인해 延曆寺사료가 권일되고, 많은 중세사료가 전란으로 인해 산일된 현재, 잡사기를 중심으로 흥복사에 전해지는 諸기록은 다소 과장된 듯 하지만 「중세란 암흑기에 비추어진 한줄기 光明」<sup>10)</sup>이라 지칭된 적도 있으며, 잡사기의 뛰어난 관찰과 세밀한 필치는 「당대의 일기중 백미」<sup>11)</sup>라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잡사기를 중심으로 그 성립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室町・戰國시대 기록물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9) 이에 대한 사적해제·문헌해설은 여러 종류가 있다. 비교적 최신으로 것으로 竹内理三·瀧澤武雄編, 『史籍解題辭典』上(古代・中世編), (東京堂出版, 1986)이 간편하다. 잡지류이기는 하나 초심자가 접근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 『日本歴史「古記録」總覽』上(古代・中世篇), (新人物往來社, 1989)도 비교적 유용하다. 또 『増訂版國書總目錄』, (岩波書店, 1993-1994)은 古代부터 幕末에 이르는 모든 문헌사료의 活字本여부, 寫本・版本의 所藏圖書館名등을 명기하고 있어 사서검색에 매우 편리한 공구서이다.

10) 辻善之助編, 『大乘院寺社雜事記』 1(増補續史料大成本) 「刊行の趣旨」, 臨川書店, 1978. (원래는 1931년 三教書店에서 간행). 이하 「雜事記」로 略稱함.

11) 永島福太郎, 「大乘院寺社雜事記について」, 『中世社會の基本構造』, (御茶の水書房, 1955), p.458.

## I. 『雜事記』의 成立

잡사기의 저자 尋尊은 永享2년(1430) 8월 7일 關白 一條兼良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永享10년(1438) 8월 당시 大和(奈良) 興福寺 大乘院 門跡(天皇家·攝家출신 승려) 經覺이 장군 足利義教에 의해 추방되자, 그의 후임자로 동년12월8일 대승원에 入室하게 되었다.<sup>12)</sup> 公卿子弟의 사원입실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平安후기이래 잉여 공경자제의 사원진출은 사원귀족화와 더불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심존은 應永年(1440) 11월 11세로 출가하였고, 동년 12월 受戒를 받아 승려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康正2년(1456) 2월 27세를 맞이한 심존은 흥복사를 총괄하는 최고직 別當(寺務)에 취임하였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sup>13)</sup> 雜事記는 이러한 심존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적은 공적 성격이 강한 개인 일기로, 別當에 취임한 康正2년이후 본격적으로 적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잡사기의 명칭이 처음부터 「大乘院寺社雜事記」였던 것은 아니었다. 明治초년, 흥복사 대승원이 폐절되어 문서기록(이른바 「대승원문서」) 대부분을 內閣文庫에 이관하였을 때, 동문고가 심존과 그의 제자 經尋의 일기를 합쳐 편 의상·입의적으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sup>14)</sup> 당초 심존은 자신의 일기를 『寺務坊廻請』이라 하였고,<sup>15)</sup> 別堂을 사퇴한 長祿3년(1459)3월 이후에는 이를 「寺社雜事記」라 개칭하였다.<sup>16)</sup>

그런데도 내각문고가 굳이 이것을 대승원사사잡사기라고 한 것은 잡사기의 傳承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大乘院을 비롯하여 당시 門主의 일기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일종의 公物로서 대대로 전승되었다. 문주가 임직하게 되면, 일기는 정리되어 상자에 넣어

12) 『雜事記』 應仁3年4月1日條

13) 同上

14) 『雜事記』 1의 凡例

15) 廻請(請定)이란 법회에 참석해야 할 승려의 이름을 連記하여 돌리는 문서를 말한다. 別當(寺務)이 직접 署名하며, 이것이 다른 각종 문서를 대표한다. 결국 문서의 발급을 위시한 諸사무집행의 기록이 사부방정회청이다.

16) 鈴木良一, 『大乘院寺社雜事記 - ある門閥僧侶の没落の記録 -』, (そしえて, 1983), pp.21-22.

져 후대에 물려주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자연스럽게 虫損이라던가 표지의 파손·首尾部의 결손도 생기게 되고 수선과 보완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수선과 보완에 즈음해서 새로운 표지가 작성되는데, 바로 이 때 잘못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존의 후계자로 永正3년(1506)에 대승원에 입실한 經尋(九條尚經의 子)도 심존의 잡사기의 체재를 본받아 일기를 적었는데, 잡사기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寺院雜要抄』라 하였다. 그런데 후대에 이것을 수선할 때 『寺社雜事記』라고 적었다. 표지가 망실되었기 때문에 표지를 덧붙이는 수선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사잡사기로 잘못 적은 것으로, 이것은 심존의 잡사기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사람이 착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심의 사원잡요초도 잡사기라 하게 되어, 이윽고 명치연간 내각문고에 소장되었을 때, 동 문고는 이것에 전부 바깥 표지를 새로 붙여 大乘院寺社雜事記라 하였던 것이다.<sup>17)</sup>

한편 1931년 三敎書店에서 출간된 辻의 공간본 『大乘院寺社雜事記』는 심존·경심의 일기이다가 역시 심존의 제자였던 政覺의 일기까지 포함해 三代의 일기를 총망라하여 편찬하려 했다.<sup>18)</sup> 그 이유를 辻氏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승원사사잡사기는 보통 심존·정각·경심에 의해 기록된 일기 약 百九十一冊을 말한다. 이번 간행에 즈음해서는 이것에 약 七十冊을 더하기로 했다. 이는 사사잡사기란 명칭을 붙이지 않고, 寺務方諸卿(尋尊筆)·尋尊大僧正記·政覺大僧正記·經尋記 등의 명칭을 붙여 별종의 기록처럼 간주되는 것을, 명칭에 의거하지 않고 기록의 성질에 의해 일련의 大系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모두를 합쳐 대승원사사잡사기라 칭한다.<sup>19)</sup>

그러나 심존분만으로도 처음 예정했던 12권에 도달하였고 출판사정도 있고 하여, 심존편저의 『(大乘院)日記目錄』을 첨부하여 우선 간행하는데 그치게 되었다.<sup>20)</sup> 따라서 현재 잡사기는 刊本の 면에서 볼때 심존의 일기만을 지칭하며,

17) 永島, 前掲論文, pp.443-444, p.450. 또한 심존의 일기에 대해서도 잡사기의 표지가 파손되어 새로 표지를 적을 때 『尋尊御記』라 적기도 하였다. 『後鑑』 등에 『尋尊御記』란 서명으로 인용되는 것이나, 현재까지도 잡사기를 달리 『尋尊御記』 또는 『尋尊大僧正記』라고도 하는 것은 여기서 연유한다.

18) 『雜事記』 1 「凡例」

19) 同上

잡사기를 심존의 일기와 동일시하는 견해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잡사기는 대승원둔적 심존의 公的인 일기이며, 따라서 잡사기를 『尋尊大僧正記』라 하여 마치 개인의 私일기처럼 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鈴木良一의 비판이 제기되는 등,<sup>22)</sup> 결국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辻氏의 노력은 尋尊大僧正記만이 대승원사사잡사기란 題名으로 公刊됨으로써 雜事記란 명칭에 한층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잡사기의 분량과 서술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명칭의 혼란 때문이다. 당초 辻의 공간본은 寶德2년(1450)부터 永正5년(1508)까지 198권이 심존분, 文明15년(1483)부터 明應3년(1494)까지 37권이 정각분, 永正15년(1518)부터 大永7년(1527)까지를 경심분으로 편찬하려 하였다.<sup>23)</sup> 잡사기를 심존에 한정할 것인가, 정각·경심까지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內閣文庫의 分類에 따를 것인가, 辻의 공간본에 따를 것인가 등등 잡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잡사기의 분량과 서술시기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sup>24)</sup>

## II. 『雜事記』의 內容

잡사기는 大乘院에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존의 사소한 신변잡기

20) 永島, 前掲論文, p.445.

21) 永島는 政覺大僧正記·經尋記가 간행되면, 그것에는 「續大乘院寺社雜事記」이라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同上). 그러나 정각의 일기는 현재 『政覺大僧正記』(史料纂集本)란 타이틀로 續群書類從刊行會에서 간행중이다.

22) 注16)과 同

23) 『雜事記』 1 「凡例」

24)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雜事記는 이른바 尋尊大僧正記, 즉 현재 공간된 辻氏의 大乘院寺社雜事記를 지칭한다. 이는 통설이기도 하며, 鈴木의 경우도 잡사기를 정각·경심의 일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大乘院寺社雜事記·ある門閥僧侶の没落の記録」이라 하여, 「어떤 문벌승려 즉 심존」(同, 前掲書「まえがき」)라고 하고 있듯이, 정작 서술은 심존에 국한되고 있다.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례·의식에 치중한 대부분의 公卿日記와 달리, 잡사기는 당시 중요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應仁의 난의 발발과 明應2년(1493)의 細川政元の 장군 義材 폐립, 南山城 國人一揆<sup>25)</sup> 등 사료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원경영의 실상, 法會에 관한 준비상황과 경비조달과정(특히 反錢의 부과징수), 그에 따른 寺社·무가영주·백성 등 諸세력의 갈등과 대립, 타협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佛堂·연못의 造營·修理에 있어 職人·人夫의 고용징발과정, 사람 수·수당·임금, 資材의 수량·가격 등을 세세히 언급하는 등 실로 이 시대 莊園領主의 장원지배의 실정과 상공업에 관한 귀중한 사료를 남기고 있다. 그 외에도 세상의 소문·예능·민속 등은 물론 본인의 꿈·神罰·미신 등이 당시의 의식과 사상을 알려주는 각양각색의 기록은 다기하기 이를 데 없이 그 종류를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雜事記내에 약 1900통(산일 된 7년분을 감안하면 추정 2100통)의 古文書가 거의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sup>26)</sup> 바로 이 점이 잡사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일급사료로서 손색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잡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鈴木이 자세히 분석하였고,<sup>27)</sup> 또한 大和國人層의 동향을 중심으로 잡사기의 내용을 분석한 森田恭二의 연구도 있다.<sup>28)</sup> 잡사기의 전반적인 내용파악은 이들 연구성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잡사기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권위의 굴절·변용이란 점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이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 1. 「下剋上」과 「貴種」 觀念

잡사기에도 이 시기의 다른 공경·사사일기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이래 유지

25) 南山城國人一揆는 日本史研究會·歴史學研究會編, 『山城國人一揆 自治と平和を求めて』, (東京大學出版會, 1986) 참조

26) 鈴木, 前掲書, pp.23-25.

27) 同上.

28) 森田恭二, 『大乘院寺社雜事記の研究』, (和泉書院, 1997)

되어 온 전통적 권위실추에 대한 위기의식이 두드러진다. 잡사기 곳곳엔 「下廻上之至」·「前代未聞」·「比興之事」·「珍事」·「不可然事」이란 표현이 산견된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심존의 귀종의식·관념이다. 즉 심존이 당시 보편적 현상이었던 下廻上 풍조에 저항한 근거는 貴種이란 그의 출신성분에 있었다.

당시에는 凡人이라 불리던 일반 평민출신의 승려와 구분하여,<sup>29)</sup> 천황가·접가출신 승려를 貴種이라 불렀는데, 奈良에서는 흥복사의 一乘院과 大乘院, 두 문적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귀종출신인 양문적은 비단 일반 평민출신의 승려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일반 공경자제출신인 院家와도 엄격히 구분되고 있었다. 물론 院家 역시 良家라 하여 귀종과 더불어 일반 범인출신의 승려와는 다른 신분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良家조차 귀종 심존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凡人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30)</sup> 잡사기는 바로 이런 귀종의 입장에서 「凡下의 대두」라는 하극상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文明8年(1476) 흥복사의 말사인 中川寺의 禪衆승려와 學衆승려사이에 寺院領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윽고 同年5월3일 興成(學衆派)이란 자가 흥복사의 사무집행기구인 六方<sup>31)</sup>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다. 육방이 선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선종은 육방중에 갇은 육설과 비방을 퍼부었을 뿐 아니라, 육방이 파견한 使者들과 승戰(칼부림)을 벌였다.<sup>32)</sup> 이에 대해 심존은 잡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략 本寺라 하던 末寺라 하던 하극상의 때이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말사는 禪·學 각각 凡下가 혼재되어 대략 種性下劣의 무리들이다. 말대이니 더욱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다. 本寺는 공경으로부터 侍 등에 이르기까지

29) 凡人이란 달리 凡下라고 하는데, 일반 하층백성을 지칭한다. 또한 凡人중에서 특히 열등한 자, 身分이 천한 자를 강조하는 의미로 凡下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田中攄, 「侍凡下考」, 『史林』59-4, 1976, p.8)

30) 『雜事記』 康正2年2月21日條

31) 六方은 六方大衆이라 하며, 흥복사의 寺中·寺外の 堂塔·諸院諸坊을 戌亥方·丑寅方·辰巳方·未申方·善提院方·龍花院方으로 여섯 집단으로 나눈 승도의 총칭으로 方衆의 연합체이다. 육방대중은 「六方衆」을 조직하여 學侶지휘하에 제단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奈良市史』 通史2, 吉川弘文館, 1994, pp.118-120)

32) 『雜事記』 文明8年5月3日條

각각 유서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六方下갈分の 무리들이 집회의 결정이라 하며, 兩門跡과 諸院家 등의 일을 농단한다. 이에 말사 또한 이를 본받아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희유의 하극상을 자행하니, (육방도) 말사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어찌 하겠는가.<sup>33)</sup>

육방 그 자신이 상위의 門跡과 院家の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니, 末寺가 육방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심존은 이해하였다. 재지영주 衆徒·國民의 대두와 더불어<sup>34)</sup> 흥복사내에서는 하층승려인 육방중이 성장하고 있었다. 심존에 따르면 「뛰어난 種性(可然種性)은 쇠퇴하고, 凡下·國民등이 입신출세」<sup>35)</sup>한 결과, 신분질서가 붕괴하여 「근래 인간들은 상하의 계급을 알지 못한다」<sup>36)</sup>는 하극상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種性下劣」은 달리 「種性不足」·「種性未練」·「種性者以外下劣」라고도 하는데<sup>37)</sup>, 귀종 심존의 의식 속엔 이와 같이 「뛰어난 種性」과 「보잘 것 없는 種性」이란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피지배층에 대한 무시는 전근대 지배층에 있어 보편적으로 보이는 愚民觀과 일맥상통하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종성의 우열이란 결국 귀종·양가·범인이란 血統에서 유래하는 출신성분에 의한 것이며, 심존이 피지배층을 천시하는 근거가 이러한 혈통에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3) 同上

34) 무가와 사사세력간의 대립이 점차 격렬해짐에 따라, 興福寺는 大和의 재지영주층을 衆徒·國民으로 편입하여 무력을 강화하게 된다. 중도·국민은 흥복사의 주된 무장세력이자 檢斷權(경찰·재판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대표가 興福寺 寺内に 거주하는 이른바 官符衆徒(대략 20인 정도)로 그 우두머리를 棟梁이라 하였다. 흥복사의 兩門跡은 이들 관부중도를 피관으로 삼아 이들의 무력을 통해 大和國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중도·국민은 남북조내란기, 응인·문명 난을 계기로 점차 門跡의 권위마저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永島福太郎, 『奈良時代の傳流』, 中央公論社, 1944, pp.44-45)

35) 『雜事記』文明7年5月10日條. 文明2年(1470)8月 河內國에 출진한 大和國 국민 越智氏에 대해, 심존은 이는 「和泉守護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國民(이란 신분)로서는 과분한 생각이다. 다만 近日은 土民·侍의 계급(의 차이)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雜事記』文明2年8月5日條)라고 적고 있다. 당시 재지영주층의 신분상승의지와 당시 사회의 신분질서의 문란이 잘 드러나 있다.

36) 『雜事記』康正3年3月26日條

37) 『雜事記』文明14年12月9日條

하극상은 결국 上下階級の 문란이라 하여 사회계층의 문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심존의 잡사기에서는 그것이 種性の 문란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종래와 같이 하극상을 단순히 계층·계급의 문란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시대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성이란 관념까지를 시야에 넣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극상은 종성을 기축으로 형성된 중세적 신분질서에 대해,<sup>38)</sup> 「種性」질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란 속성도 내포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심존이 우려하고 있었던 下剋上의 실체였다.

## 2. 「神罰·神國」論

잡사기에는 장원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잡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며, 다른 공경·사사일기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장원이야말로 釋尊의 귀종관념을 현실적으로 관철시켜 주는 물질적 기반이었으니, 여기에 심존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심존은 門跡領 장원과 그 경영에 세심한 주의를 쏟고 있으며, 무가세력의 흥복사령·문적령 침탈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雜事記를 달리 莊園領主 심존의 기록이라<sup>39)</sup> 하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장원은 경제기반이자 생활터전으로, 모든 寺社는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寺社領 장원은 기본적으로 神佛行事와 法會를 매개로 성립되고 있었으니, 어느 특정장원이 大名·在地領主의 침탈을 받아 米·燈油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사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諸법회는 중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각종 法會등에 소요되는 諸경비는 각각 특정 장원으로 부터의 공납으로 채워졌으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興福寺의 창설자라 할 수 있는 藤原不比等の 年忌法要는 「本願忌」라 하여 매우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文明元年을 최후로 하여

38) 「古代的」요소의 잔존으로 보여지는 種性(이를 근간으로 하는 신분질서·사회이념)에 대해 단편적으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분석이라 할만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우선은 黒田俊雄, 「中世の身分制と卑賤觀念」, 『日本中世の國家と宗教』, (岩波書店, 1975)를 참조

39) 鈴木, 前掲書, p.19.

이후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법요의 料所인 越前國의 木田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여, 정해진 緋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0)</sup>

잡사기 곳곳에 보이는 신벌론은 이러한 무가세력의 寺社領 장원침탈에 대한 대항논리의 하나였다. 장원을 침탈하여 법회를 어지럽히는 등 寺社(佛法)에 피해를 입힌 자(「神敵佛敵」)<sup>41)</sup>에게, 불법의 옹호자인 신이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린다는 주장이다. 물론 무장한 흥복사대중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는 적극적인 경우도 있지만,<sup>42)</sup> 옹인·문명 난 후 사사세력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신벌론을 근거로 장원침탈을 비난하는데 그치고 마는 소극적인 행동이 일반적이 된다.

이런 관념과 행위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란 중세정통사상인 현밀불교사상에 의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사원층의 다소 주관적인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가령 심존은 應仁·文明 난에 대해 「이번의 大亂 중 모든 大名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神罰을 받았다」<sup>43)</sup>라고 한다. 즉 諸대명이 대란으로 죽거나 고생하는 것, 다시 말해 대란 자체가 신벌이라 이해한 것이다. 이는 심존 휘하의 중도·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도·국민이 분적의 명령을 위반하여 武家に 충성을 다 하는 것, 다시 말해 武家奉公을 위해 죽거나 고생하는 것 그 자체가 신벌이라는 것이다.<sup>44)</sup>

문제는 이러한 神罰論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재지영주층을 위시한 무가세력의 장원침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점에 있다. 사실 신벌론의 현실적인 기능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무가세력의 사사령 장원에 대한 침탈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인의 대다수가 神罰에 대해 강한 위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 또한

40) 鈴木, 前掲書, p.56. 반대로 없어진 神佛행사를 되살리는 행위는 상실한 장원에 대한 권익을 새로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다.

41) 『雜事記』 文正元年閏2月7日條

42) 畠山持國의 침탈(大和宇智郡)에 대한 흥복사 대중의 봉기(『雜事記』 享德3年9月29日條), 七大寺의 閉門(『雜事記』 康正元年8月10日條 同19日條), 細川勝元の 兵庫關連亂에 대한 七大寺폐문, 춘일사 폐문, 神木動座(『雜事記』 寛正4年12月11日條 同14日條), 赤澤朝經의 사령침탈에 대한 항의로서 春日神木 이동(『雜事記』 文龜元年4月1日條), 춘일사 七大寺 폐문(『雜事記』 文龜2年7月18日條) 등.

43) 『雜事記』 文明元年10月26日條

44) 鈴木, 前掲書, pp.187-188.

분명한 사실이다. 籠名행위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가령 「細川左京大夫猛惡造意敷五社・七堂等可被籠名」<sup>45)</sup>이라 하듯, 농명이란 신벌의 힘을 빌려 제삼자에게 벌을 내리기를 비는 저주이다. 대상자의 이름(名)을 적어 春日社頭에 묻고(籠) 저주의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농명이라 하는데, 농명당한 자는 미치거나, 악병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횡사한다고 당시인은 믿고 있었다.<sup>46)</sup> 자기가 스스로 신에 맹세하여 위반시에는 신벌을 청하는 「敬白 天罰連署起請文之事」<sup>47)</sup>으로 시작되는 기청문과 달리, 농명은 자기가 제삼자의 벌을 청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한 기청문이 일본 全國각지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농명은 주로 大和지역에 한정된다는 사실도 기청문과 다른 점인데,<sup>48)</sup> 농명으로 인한 신벌의 결과는 사망,<sup>49)</sup> 一家・同族間의 대립,<sup>50)</sup> 家の 단절,<sup>51)</sup> 發病,<sup>52)</sup> 沒落<sup>53)</sup>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믿었다.

한편 神罰論과 더불어 무가의 장원침탈을 제어하기 위한 대항논리가 神國論이다. 「神들이 보호하는 나라=日本」이라는 국토를 神聖視하는 관념을 핵심으로 하는 신국사상은 일반적으로 일본전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sup>54)</sup> 잡사기에 보이는 神國論은 大和=神國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大和國內에서는 他國출신의 守護・재지영주층의 領地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례였다.<sup>55)</sup> 흥복사는 大和國이 「本朝無雙神國也」<sup>56)</sup>라 하여, 「爲

45) 『雜事記』 文明4年12月7日條

46) 『雜事記』 文明17年11月25日條・同18年4月21日條・延德3年4月7日條. 籠名을 당한 자가 그 해제를 청하여, 神社에 참배를 하거나, 2百貫이라는 막대한 금전을 보내 예를 표한 경우도 있다(『雜事記』 明應8年2月20日條)

47) 『雜事記』 文明19年5月4日條

48) 酒井紀美, 「名を籠める」, 『ことばの文化史』 中世2(平凡社, 1989)

49) 中山親通(『雜事記』 寬正3年6月17日條), 大館教氏(『雜事記』 寬正4年7月7日條), 英寬(香專坊)(『雜事記』 文明17年7月23日條), 高田氏의 아들(『雜事記』 長享3年2月14日條), 岸田氏(『雜事記』 明應元年12月14日條) 등의 경우.

50) 畠山義就・細川勝元의 경우(『雜事記』 寬正4年12月25日條)

51) 廣橋兼顯의 경우(『雜事記』 文明11年5月15日條・同13年5月22日條)

52) 佐川氏 父의 惡瘡(『雜事記』 文明11年10月4日條), 古市氏의 대관 北野山主計入道の 腫瘍(『雜事記』 文明17年8月12日條)(이상 결국 사망), 學乘房 賢定房의 중풍・종양(『雜事記』 明應6年3月19日條) 등의 경우.

53) 筒井・布施・十市氏의 경우(『雜事記』 文明19年5月29日條)

54) 黑田俊雄, 「中世國家と神國思想」, 『日本中世の國家と宗教』 참조

入武家手地也」<sup>57)</sup>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겸창막부도 이를 존중해 大和國의 가출신의 守護를 두지 않았고 一乘院과 大乘院 兩문적으로 하여 守護를 대신하게 하였다.<sup>58)</sup> 그 결과 대화국은 오랜동안 상대적으로 별다른 력의 침탈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었

데 大和=神國의식은 심존을 위시한 흥복사 승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大和의 중도·국민도<sup>59)</sup>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던 관념이었다는 점에 주의가 있다. 또한 大和=神國論은 단순히 관념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기능하고 있었다.

1497年(1494) 2月 河內國의 守護 畠山尚順은 大和國人 萬歲氏의 상속지를 피관이자 역시 대화국인인 布施氏에게 그 지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실제로는 상속지의 3분의 1을 布施氏가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나, 布施氏는 은밀히 흥복사에 「神國에 무가의 給人이 入部하는 것은 회<sup>60)</sup>」이라 주장하면서, 畠山氏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타진하였다. 심존은 민이 평소에는 寺門의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필요할 경우에만 도움을 주고 비판하고 있으나,<sup>61)</sup> 이와 같이 대화국의 神國의식은 흥복사 승려는 물론, 大和의 중도·국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관념이었다.

神國관념이 존재하는 한 衆徒·國民은 門跡의 전통적 권위를 여전히 필요였고, 바로 이것이 문적 심존이 존재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대화국 門跡의 권위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이 大和의 재지영도·국민이 大和=神國論에서 사상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

『室記』 康正3年2月8日條

『室記』 文明9年9月23日條

『室記』 文明2年8月5日條

進一, 『增訂鎌倉幕府守護制度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71, p.2) 및 同, 『室町守護制度の研究』上(東京大學出版會, 1967, p.2)

) 참조

『室記』 明應7年2月20日條

무가세력에 의한 사사령 莊園침탈, 중도·국민·육방에 의한 下剋上이란 시대 상황속에서도 門跡의 전통적 권위는 여전히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장원침탈과 하극상풍조만을 오로지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 雜事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에 비판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여전히 保持하고 있는 傳統勢力의 오랜 생명력이 서술되고 있다. 잡사기는 사사세력이란 傳統세력이 결코 한순간에 급속히 몰락하지 않았으며, 무가세력과의 갈등·대립속에서도 타협과 저항을 통해 일정정도 살아남아, 屈折·變容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부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맺음말

雜事記는 문서의 성격으로 볼 때 覺書이며, 平安시대이래 公卿日記의 전통을 잇고 있다.<sup>63)</sup> 다만 승려일기가 급증하는 室町·戰國시대 일기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경일기의 연장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室町·戰國시대의 역사는 어느 一國 또는 어느 一大名の 興亡을 기록한 實錄이던가 개인이 자신의 전문을 기록한 覺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64)</sup> 잡사기 또한 일기의 이른바 覺書性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데, 이는 공경일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점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또한 이러한 실정·전국시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應仁期에 있어서 歷史意識의 滅亡」<sup>65)</sup>이란 평가가 있듯이, 잡사기에

62) 중도·국민이 비록 이전에 비해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흥복사로부터 완전히 자립한 것은 아니고, 이들은 여전히 흥복사 조직에 의존하고 있었다. 「學侶·大方은 모두 중도·국민의 자식들이다」(『雜事記』 文明5年10月21日條)라고 하듯이, 이들은 흥복사의 중추조적인 학려·육방에 자제를 침투시켜, 이를 기반으로 적어도 흥복사의 뜻을 내세워 諸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63) 鈴木, 前掲書, p.26.

64) 平重道, 「室町時代の歷史思想 - 神皇正統記と太平記と北條五代記 -」, 『日本における歷史思想の展開』, (吉川弘文館, 1965), p.151.

65) 今中寛司, 「戰國·安土桃山時代の歷史思想 - 歷史意識の滅亡と甦生」, 『日本における



도 뚜렷한 역사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잡사기의 내용에 대해鈴木처럼 「어떤 門閥僧侶의 沒落의 記録」이라 하여, 단순히 「沒落」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貴種 심존은 「凡人」들의 대두라는 시대의 전환기의 와중에서 그 다름대로 貴種의식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었다. 후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沒落」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심존 나름대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흔적이 곳곳이 남겨져 있다. 몰락해가면서도 神罰論·神國論의 논리를 내세워 여전히 일정정도 생명을 유지하는 傳統의 힘을 잡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해 주고 보면, 종래 이 시기의 傳統勢力을 단순히 「沒落」의 관점에서만 파악해 온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잡사기는 이 점을 실로 잘 묘사하고 있는 실정·전국시대의 대표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 【日文摘要】

## 室町・戦國時代の「記録」と『大乘院寺社雑事記』

朴秀哲

本稿は、「當代日記の中の白眉」と評價される『大乘院寺社雑事記』の内容を分析し、室町・戦國時代における記録物の實相と時代像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た。『大乘院寺社雑事記』は、興福寺の別當であった尋尊(關白一條兼良の息子)の諸般活動に關聯した事柄について記した日記である。この雑事記は、儀禮・儀式を重視した他の公卿日記とは異って、幕府の動向、莊園經營の實體、當時のうわさ、藝能、民俗など、各様各色の内容が包まれている。筆者は、この雑事記の核心を特に「下剋上」と「貴種」觀念、「神罰・神國」論と捉え、これを中心に考察した。

まず筆者が注目した点は、尋尊の貴種意識・觀念である。すなわち、當時の普遍的な現狀であった下剋上の風潮に抵抗した尋尊の思想的根據は、貴種(天皇家・攝家出身)という彼の出身成分にあった。先行研究では、下剋上を上下階級の紊亂と見なし、社會階層の紊亂としか理解してこなかった。しかし、尋尊がこれを種性の紊亂として捉えている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従來のように、下剋上を單なる階層・階級の紊亂とみるのは妥當ではなく、種性という觀念までを考慮しながら理解すべきである。下剋上は、種性を基軸として形成された中世的な身分秩序に對して、「種性」秩序の解體を要求する運動という屬性も内包しており、まさにこれが、尋尊が憂慮した下剋上の實體であった。

一方、雑事記に散見する神罰論と神國論は、下剋上を通して成長した武家勢力によって恣行された寺社領の莊園押領に對する對抗論理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觀念は、基本的に武家勢力を含め、當時の人々が當然のこととして認め

ていた普遍的価値であり、この神罰論と神國観念こそ、門跡である尋尊が權威を維持しえる基盤であった。武家勢力による寺社領荘園の押領、衆徒・國民・六方による下剋上という時代状況の中でも、興福寺の門跡という伝統的な權威は、依然として一定の機能を果たしていた。

この点からみれば、先行研究のように、この時期の傳統勢力を單純に「没落」の観点からとらえるのは妥當ではなく、その裏面にさまざまな動きや變化が含まれていたこと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大乘院寺社雑事記」は、まさにこの点をよく描寫した室町・戦国時代の代表的な記録物なのである。